

미항사 괘불, 목포서 '세월호 아픔' 달린다

<보물 제1342호>



보림사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탑지석.

바다와 육지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한 염원을 담고 있는 해남 '미항사 괘불탱'(보물 제 1342호)이 세월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목포로 간다. 장흥 보림사에서 발견된 탑지석과 사리함 등은 8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광주박물관이 부처님 오신 날(5월3일)을 맞아 각각 미항사와 장흥 보림사와 함께 나란히 특별전을 기획했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바닷속 영혼을 구원하는 부처, 괘불'전을 5월2일부터 6월4일까지 연다.

괘불(佛佛)은 법당 밖에 거는 의식용 불교 그림으로, 미항사 괘불은 영조 3년(1727년)에 높이 11.9m, 너비 4.84m 규모로 제작됐다.

미항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년) 해남 포구에 도착한 돌배(石船)에 탄 사람들이 인도 경전과 불상을 의조화상에게 건네며 창건됐다고 전해진다. 정유재란(1597년) 당시 대부분 전각이 불에 탔으며 이후 재건할 때 스님들이 탄 배가 침몰한 일이 있었다. 미항사 괘불은 임진왜란 이후 바다와 육지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한 염원을 담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항사는 매년 10월 괘불제(佛佛齋)를 열어 일 년에 단 하루 '괘불'을 공개해왔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기념과 함께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 전시돼 의미를 더한다. 괘불탱 진품은 해양유물 전시관 내에서 5월2일부터 10일까지 볼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모작품이 배치된다.

5월10일에는 특별행사로 미항사가 주관하는 '수륙제'(水陸齋·물과 육지의 모든 중생들을 천

'부처님 오신 날' 특별전 2제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월 2일~6월 4일

'바닷속 영혼을 구원하는 부처, 괘불'전

국립광주박물관 5월 3일

'보림사 삼층석탑 문화재 친견'전

도하기 위한 의식)가 열린다.

금강 스님은 "미항사는 세월호 사고해역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늘 희생자들을 생각하던 중 연구소 측에서 전시 요청이 와 흔쾌히 동의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희생자들이 극락왕생하고 유족들도 아픔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270-2044.

국립광주박물관은 5월3일 보림사에서 특집전 '보림사 삼층석탑 성보문화재 친견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림사 남·북삼층석탑(국보 제44호)에서 발견된 탑지석과 사리함 등 문화재 6점을 보림사에서 처음으로 현장 공개하는 자리다. 또 190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촬영한 보림사 사진도 함께 전시한다.

장흥 보림사는 신라 경덕왕 18년(759년) 원표대사가 세웠으며 현안왕 3년(859) 보조선사 체징에 의해 선종 구산선문(신라 말~고려 초 선종을 펴뜨린 9개 승려집단) 중심 도량이 됐던 사찰이다.

보림사 삼층석탑의 성보문화재들은 1934년 훼손된 석탑을 보수할 때 1층 탑신부 사리구멍에서 발견됐다. 이 때 나온 탑지석에는 남·북 삼층석탑이 870년에 현안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선종 사찰과 통일신라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문화재들은 장흥군청, 옛 광주시립박물관을 거쳐 1979년부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상설전시하고 있다.

보림사 현장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062-570-70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보물 제 1342호 미항사 괘불

백양사 애기단풍신록 축제

28~5월 7일...음악회·인문학 특강 등 행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장성 백양사가 '제1회 백양사애기단풍 신록축제'를 28일부터 5월7일까지 연다.

28일 사전문 앞에서 '일도일각' 전각작업으로 유명한 현로 최규일 작가가 전각 퍼포먼스를 펼친다. 중광스님의 스승인 최작가는 사라져가는 전통 전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쌍계루 앞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음악회가 28일, 5월5일 두차례 열린다. 28일에는 광주시립합창단이, 5월5일에는 국

악·트롯 가수 무대에 오른다.

29일·30일·5월3일·5월5일에는 인문학 특강이 마련된다. 지선 백양사 방장스님('불자답게 살아가는 법'),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산림과 사찰의 관계') 등이 강사로 나선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지선 방장스님의 법어와 작은 음악회, 신도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대회, 제등행렬, 전통불꽃놀이·낙화놀이(쌍계루)를 진행한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불꽃놀이는 분수처럼 떨어지는 불꽃이 특징이다.

그밖에 29일·30일에도 작은 음악회·노래자랑이 열리고 먹거리장터, 전통놀이체험·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일목 스님이 담당하는 먹거리 장터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통놀이체험은 전통용기·사진 전시, 종이꽃잎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된다.

행사가간 백양사 일대는 철쭉, 튼リップ 등으로 꾸며지고 일주문은 야간 조명을 설치해 볼거리를 더한다. 문의 061-392-750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순천만의 붉은 갯벌'...한임수 개인전

갤러리 S

5월 10일까지



'순천만의 붉은 갯벌'

한임수 작가가 동구 예술의 거리 갤러리S에서 5월10일까지 '순천만의 붉은 갯벌'을 주제로 초대전을 연다.

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마티에르(물감을 두텁게 칠해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 기법으로 순천만의 정취를 표현한 회화 2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 주요 소재는 순천만 함초군락지다. 순천만 함초는 봄 초목빛을 시작으로 가을 붉은빛까지 1년간 색이 7번 변해 '질면초'로 불린다.

순천에서 활동하는 한 작가는 순천만 함초 군락지를 오가며 자연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기고 있다. 특히 가을에 갯벌을 물들이는 붉은 함초를 주

로 그린다.

온통 붉은 빛인 '순천만의 붉은 갯벌' 연작은 캔버스 안에서 바다와 하늘, 갯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밝기가 다른 빨간색을 사용하며 땅과 하늘을 자연스럽게 구분한다. 갯벌을 마티에르 기법으로 표현하며 거칠면서도 순박한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한씨는 대구예술대 서양화과와 전남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서울, 광주, 대구, 순천 등에서 개인전을 16회 열었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2회, 미술세계대상전 입선,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문의 010-7340-0113. /김용희기자 kimyh@



전남도립국악단 판페라 '이순신' 공연

29일 남도소리 울림터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오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남도소리 울림터 공연장(남포 소재)에서 충무공 탄신기념 판페라 '이순신'(사진)을 무대에 올린다.

'판페라 이순신'은 장군의 명량해전 활약상과 남도민의 의로움을 전통 판페라(판소리+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에 담은 작품으로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개최 기념공연으로 초연한 뒤 2013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과 시군 초청(명량대첩축제, 장흥물축

제, 보성 소리축제) 무대 등 모두 35차례 공연됐다.

70여명의 단원이 출연해 웅장한 국악 관현악연주와 무용, 판소리를 선보이는 작품으로 주인공 이순신 역은 양신승, 구루시마 역은 박춘맹씨가 맡았으며 민초들의 사랑을 얻기할 수완과 양심 역으로 최윤석, 임서연씨가 출연한다.

일반 1만원, 단체·대학생 7000원, 초·중고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000원이며, 티켓링크(1588-7890)에서 예약 가능하다.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